

바람직한 직장공동체 문화 마련한다

전북교육청,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 TF 첫 회의 실시... 실태 분석·진단·개선안 제시·비전 공유

전북교육청이 직장 문화 개선에 나선다. 지난 24일 도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운영은 직장공동체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 급속한 환경 변화와 직원 간 세대 차이, 가치관의 변화 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논의 및 공감을 통해 전북교육비전을 공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직장공동체와 연수기관 전문가, 정책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팀원의 2분의1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했다.

앞으로 TF팀은 연말까지 매월 1회 정기모임 및 필요시 비정기 모임을 통해 교육청 직장공동체 문화에 대해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발굴·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4일 도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직장공동체 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또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타 시도교육청, 민간기업 등의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구성원 설문·면담·현장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적합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직장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예술꽃 향기에 '흠뻑'

남관초 록밴드 '꼬마 Peppers' 고창공연 큰 호응

남관초등학교 학생 록밴드 '꼬마 Peppers'가 지난 24일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노을캠프에서 5월의 싱그러움을 더하는 멋진 공연을 가졌다.

이날은 수준 있는 한국, 대만, 일본의 27개 팀의 뮤지션들이 모여 공연을 하는 GREENLE 뮤지션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식전행사로 이뤄진 야외공연에서 남관초등학교(교장 장남덕)의 8학년 학생 9명으로 이뤄진 '꼬마 Peppers' 밴드는 관라하러 온 수많은 관광객과 뮤지션들 앞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Ring in the deep와 Zonic 곡을 열창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의지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꽃씨앗 학교로 선정, 4년 동안 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 2019년 남관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과시간과 방과후학교 시간에 좀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음악교육을 받아 예술 감수성을 높여왔다.

남관초 교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이 적은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을 체험하게 하여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문화적 역량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관초 학생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친구들이 연주하는 악기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게 됐다"면서 연신 웃음을 지었다.

해수욕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자신 있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음악은 남녀노소를 행복하게 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다며 아이들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남관초 학부모모임이 회원들과 교직원 음악동아리 회원들도 뮤지션 페스티벌에 함께 참석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정은성 기자

여성일자리창출 위해 영·호남 머리 맞대

전북·전남·경북·경남광역새일센터, 교류세미나 개최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영·호남 지역 새일센터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여성일자리 현황 공유 및 새일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영·호남권 여성일자리 창출 교류세미나'를 지난 24일 전남 여수기주재단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정책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일센터 운영 10년이 도래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새일 10년, 향후 10년'이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근 새일센터 확대를 시·도 내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새일센터의 역할

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새일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새일센터의 위상 강화 △또 하나의 새일센터로서 경쟁자가 아닌 함께 맞물려 구동되는 협업시스템 구축 △기존 취업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중앙새일센터의 여가부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기능수행 등에 관한 역할 변화를 논의했다.

영·호남 여성일자리창출 교류세미

나는 2017년도부터 시작한 광역권 새일센터 간 협업사업으로 센터 간 우수 사업 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광역센터가 성장 발전하는데 일조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이윤애 센터장은 "전북광역새일센터는 센터에 기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사업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에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광역새일센터가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24일 영재교육원에서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으로 호남제일고등학교 이강선 학교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도교육청, 소속 기관 인권교육 지원... 30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소속 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인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희망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을 접수하기로 했으며, 87곳 내외를 선정해 인권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권교육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인권분야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아카데미, 워크숍, 세미나를 비롯해 인권·생태·평화 등 테마 기행도 운영한다.

특히 성평등, 노동인권,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의 인권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민주주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인권교육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장기 군법무관 4명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법학전문대학원이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2위 성적을 올렸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결과 원광대는 조수빈, 허창일, 백지원, 박철홍 씨 등 총 4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1명의 군법무관이 최종 선발된



가운데 원광대에서만 4명이 합격함으로써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조수빈(30 사진) 씨가 전체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법무관은 기초군사 훈련 후 대위로 임관해 군사법원 판사, 군 검사, 국가소속, 방위사업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올해까지 총 9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배출했으며, 여군 법무관 출신 최초로 2018년 경력 법관에 임용된 백장미(2기 졸업생) 판사가 장기 군법무관 출신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 선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24일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관내 14개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제22대 회장으로 호남제일고등학교 이강선 학교운영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1년간)이다.

그간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98년부터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전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선 학교운영위원장은 "전주교육지원청은 14개 시·군의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교육 1번지이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주 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은 전주다움 교육의 활성화와 학교-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자로서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 구현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은 물론 학교 현장과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